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12월 13일(수)

**윤석열 대통령,  
네덜란드 상원의장 및 하원 부의장 합동 면담**  
**-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네덜란드 상·하원의 지원 요청 -**

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현지시간 12/13, 수) 오전 헤이그 상원 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(Jan Anthonie Bruijin) 상원의장 및 레이몬드 드 로온(Raymond de Roon) 하원 부의장\*을 합동 면담했습니다.

\* 면담 당일 네덜란드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하원 부의장이 대리 참석

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고 하고, 네덜란드 왕실, 정부, 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.

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, 이번 국빈 방문이 한-네덜란드 파트너십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
또한,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,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,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

대통령은 반 고흐와 렘브란트의 나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,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반도체, 바이오

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, 개발협력, 인권외교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,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통용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.

아울러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 우리의 교역 2위 파트너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유럽 국가임을 언급하며, 양국이 정부, 기업, 대학을 아우르는 '반도체 동맹'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

대통령은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, 한-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당부했습니다.

이에 브라윈 의장과 드 로온 부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. 아울러, 네덜란드 상하원 대표단은 북한의 군사 위협,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무탄소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<끝>